## 제6강 아우구스티누스 : 시간의 역설에서 시간 의식으로 Ⅱ

(1교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영원 개념과 신을 참다운 존재라고 할 때 존재의 개념이 과연 아무런 무리 없이 결합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존재라는 개념을 증기로 만들어 날려버립니다. 물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고 마치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와 비슷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는 자라면 도대체 영겁조차 아닌 영원을 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유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지경입니다. 사유가 막힐 때 우리의 의식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나도 감각이 충일하게 의식을 채우면 의식은 사유의 여지를 갖지 못합니다. 그 어떤 감각도 없이 의식이 텅 비어버리면 의식은 역시 사유의 여지를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의식이 무슨 그릇과 같아서 꽉 채워지거나 텅 비어버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적인 감각의 영도(零度)를 붙들고 그 점적인 영도를 넘어서 마이너스의 허수 세계로 상승해 올라가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감각의 만도(滿度)를 향해 여기 이 무진장한 세계로 내려와야 하는 것인가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영겁 이야기는 '어두움의 심연' 즉 대체적인 우주 창조의 신화의 구도로 볼 때 '카오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깁니다. 번역서에서는 '꼴이 없는 두루뭉수리'라고 하는 멋진 역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정형적인 것이어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는 아니고 무에서 창조되어 나온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347쪽 참조) 그리고 시간의 변화는 사물의 변전으로 이루어지고, 사물의 변전은 형상이 변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349쪽 참조)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 가능의 모든 것은 그 어느 틀 잡히지 않은 것을 우리 머리에 시사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어느 형을 받기도 하고, 바뀌기도 뒤바뀌기도 한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 한편 변화 불가능한 형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원래는 변화 가능의 것일지라도 변화를 받지 않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음도 진리입니다. (…) 끝으로 두루뭉수리에서 틀이 잡힌 모든 것은 먼저 두루뭉수리이다가 다음 틀이 잡힌 것이 진리입니다."(360-361쪽)
이렇게 보면 시간은 결국 크게 두 존재 즉 영원의 신과 신에 의해 창조된 카오스 사이에서 탄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명백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모든 형상은 궁극적으로 신에 귀속될 수밖에 없을 터이니, 카오스 즉 순수 질료와 신 즉 순수 형상들(질서들)의 결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되고 비로소 사물이 변전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성립하는 것임을 말하는 셈입니다.

### 2.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시간의 역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무도 묻는 이가 없으면 아는 듯하다가도 막상 묻는 이에게 설명을 하려 들자면 말문이 막히고 마는" 것이 시간이라고 말하면서,(324쪽) 시간문제의 아이러니한 점을 우선 지적합니다. 그러한 아이러니는 우선 몇 가지 중요한 역설들로 나타납니다.

www.artnstudy.com

“흘러가는 무엇이 없을 때 과거의 시간이 있지 아니하고, 흘러오는 무엇이 없을 때 미래의 시간도 있지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없을 때 현재라는 시간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 그 과거가 있지 않게 되는 적은 언제이며, 미래가 아직 있지 아니한 때는 또 언제이냐? 현재가 늘 현재로 있다면 과거로 지나갈 리 없으니, 따라서 시간은 없고 영원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즉 만약에 현재가 시간이기 위하여 과거로 흘러가버려야 될 수 있다 치면 어찌 이것을 ‘있는 것’이라 일컬을 수 있겠느냐.”(324쪽)

‘현재여서는 안 되는 현재의 역설’이라 이름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 흘러가버려야 현재일 수 있다면, 현재가 아니라야만 현재인 셈이니 이런 역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예리한 통찰이 번뜩이는 장면입니다. 이 역설은 ‘틈이 없는 현재의 역설’로 이어집니다.

“만일 시간을, 찰나의 찰나로 쪼갤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만을 현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이것마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는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서 순간도 쉬는 틈이 없는 것이다. 쉬는 틈이 있어야 과거와 미래로 나뉠 수 있는데, 현재란 사실 아무런 틈이 없는 것이다.”(326쪽)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흐름이 조금이라도 쉬어야 거기에서 현재가 성립할 터인데 도대체 그런 틈이 없으니 현재가 성립할 수 없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가 구분될 것인데 현재가 성립되지 않으니 과거와 미래를 나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니 과거니 미래니 하니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간격이 전혀 없는 사이이니 없다’라는 역설이 성립됩니다.
이와 관련해 또 하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기하는 역설 중의 하나는 시간 측정의 역설입니다.

“시간을 재고 있는 줄은 아옵니다만 그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아직 있지 않으니까. 현재도 아닙니다, 어떠한 길이로 연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과거는 더욱 아닙니다, 이미 없는 것이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을 잰다는 것입니까?”(336쪽)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잽니다. 두 소리가 이어져 날 때, 앞소리가 뒷소리보다 길다고 하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너는 춤을 추었다고 하면서 ‘동안’이라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놓고서 ‘동안’이라 하고 ‘더 긴 시간’이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묻고 있습니다.

www.artnstudy.com

(2교시)

### 3. 아우구스티누스가 밝히고 있는 시간의 의식 의존성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에 관한 역설들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자기 나름의 시간론을 전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논리의 순서로 보면, 이러한 역설들이 분명히 성립하고 따라서 이 역설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나름의 시간론을 안출한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똑똑히 밝혀진 것은 미래도 과거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함이 옳지 못할 것이요, 차라리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이렇게 세 가지 때가 있다 하는 것이 그럴 듯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혼 안에 있음을 어느 모로 알 수 있으나 다른 데선 볼 수 없사오니 즉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목격함이요,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세 가지 때를 내가 볼 수 있고, 사실 셋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329-330쪽)

이 대목은 아우구스티누스 시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소광희 선생님은 목격함을 '직관'으로, 기다림을 '기대'라 약간 달리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데, 그 현재가 세 가지 때 즉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로 나누어진다는 것이고, 그것들 각각이 기억, 목격함, 기다림이라는 영혼의 세 가지 활동에 연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은 원리상 인간 정신의 산물로서 의식 내부에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하자면, 현대 철학적 시간론의 확립자인 훗설의 시간론은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을 극한적인 미분을 적용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훨씬 더 정교한 것이지요. 칸트가 시간을 감성의 형식이라고 한 것도 결국 따지면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을 발판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이러한 의식 내적 시간론을 앞서 잠시 언급한 시간의 측정 문제를 통해 더욱 공고하게 입증하려 합니다.

"공간이 없거늘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재리이까? / 그러기 지나가는 동안에 재는 것이니 지나가버린 뒤면 잴 것이 없어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재는 동안의 시간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해, 어디로 지나가는 것입니까? (…) 공간이 없는 것은 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디로' 지나가는 그 과거를 재리이까? 그러나 이미 있지 않은 것은 잴 수도 없는 것입니다."(330-331쪽)

이렇게 시간 측정의 아포리아를 제시한 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구절이라도 장단을 길게 뽑아서 부르면 오히려 긴 구절을 빠르게 부르는 것보다 더 오래일 경우가 있는 까닭입니다. 시나 각운이나 음절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 내가 시간을

www.artnstudy.com

연장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의 연장이냐고 한다면 나는 모릅니다. 아마도 내 영혼의 연장일 성싶습니다."(335쪽)

'시간의 연장' 즉 시간의 길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하지만 길이란 공간에 해당되는 것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길이란 결코 공간적인 길이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연장이냐고 물어보면 자신도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측컨대 '영혼의 연장' 즉 마음의 길이일 듯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광희 선생님의 번역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란 연장입니다. 그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의 연장인가? 마음 자신의 연장이 아니라면 이상합니다."(소광희, 296쪽)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에 비해 훨씬 더 단정적인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문헌학적인 따짐을 일삼을 겨를은 없습니다. 소광희 선생님의 해설을 참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의 연장을 '마음의 분산'(distentio animae)이라고 한다. distentio는 dis-(분산)와 tendere(향하다)의 합성어로 그 반대를 그는 '마음의 집중'(extendo animae)이라 한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방향으로 분산하여 퍼지는(연장하는) 마음이다. 예컨대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하자. 1) 부르기 전에 마음은 노래 전체에 tendere(향)한다. 2) 부르기 시작하면 이미 부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향한다. 3) 아직 부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향한다. 그리하여 2)와 3)의 '향함'(tendere)은 마음이 분산(dis-)되어 향하는 dis-tendere이다. 현재는 직관(attendere)으로 tendere함으로 결국 마음은 세 방향으로 dis-tendere(분산)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시간은 마음의 분산'이다."(소광희, 296쪽)

소광희 선생님의 해설이 아주 친절하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마음의 분산'과 '마음의 집중'에 관한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아 과거 현재 미래로 분산되는 것과 이 셋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해 소광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원에의 길은 따라서 '분산'과 반대되는 길, 즉 마음의 '집중'(extentio, extentus)이라야 한다. 시간으로의 길은 무적(無的)인 것의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의 분산이며, 영원에의 길은 일자(一者)에로의 마음의 집중이다."(소광희, 303-4쪽)

마음의 집중은 영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길을 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이른바 '영원한 현재'를 획득하는 방책이 곧 마음의 집중인 것이지요. 그런데 'extentio'를 굳이 '집중'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를 설명한 소광희 선생님의 각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낱말의 뜻으로만 본다면, extentio는 distentio와 동의어로서 streching out, extention을

www.artnstudy.com

의미한다. 또 집중을 나타내는 낱말로는 in-tentio가 있다. 그럼에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전적 의미를 무시하면서 '집중'이라는 뜻으로 extentio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현재의 성격에 있다. 그에게 있어서 현재는 단순히 시간 양상의 하나가 아니라, 영원이 **수직적으로** 임현(臨現)하는 곳이다. 따라서 영원인바 현재에 이르는 것은 (과거 미래는 물론이요) 시간 양상의 하나로서의 현재 밖으로 나아가서(ex-) 즉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현재의 영원성)에 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distentio와 대비해서 사용한 extentio를 '집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다."(304쪽 각주)

'수직으로 선 시간을 찾아서'라는 본 강좌의 제목에 직결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원이 수직적으로 임현하는 곳'을 찾으면 수직으로 선 시간을 찾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그 영원의 출처마저도 우리네 삶의 내재적인 영역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tendere'(향함)가 훗설 현상학의 지향성에서 근본적인 것이고, 훗설의 시간론에서 핵심 개념인 'Retention'(把持)과 'Protention'(豫持)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지는 '다시 향함'이고 예지는 '미리(앞으로) 향함'인 셈인데, 훗설은 향할 뿐만 아니라 '잡는다'라는 뜻을 보탭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훗설 시간론을 할 때 소상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3교시)

아무튼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 내적인 의식의 결과물임을 입증하려는 과정에서 시간 측정의 문제를 소재로 삼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내 다시 말하노니 네 안에서 시간을 재노라. 지나가는 사물들이 너 안에 이뤄놓은 인상 - 즉 그것들은 지나가도 남아 있는 그 인상 - 을 나는 현재하는 것처럼 재는 것이니, 인상이 생기기 위하여 지나가버린 그 사물을 재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이것이 곧 시간이요, 아니면 나는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닐 것이다. (…) 아직 없는 미래가 오랜 시간일 수 없고, 다만 미래의 오랜 기다림이 오랜 미래일 것이요, 이미 없는 과거가 오래일 수 없고, 다만 과거의 오랜 기억이 오랜 과거일 수 있는 것이다. (…) 이렇게 연거푸 진행이 되어갈수록 '기다림'이 짧아지는 반면 '기억'이 길어지고, 드디어는 '기다림'이 아주 없어지고 나면 전행동이 끝나 '기억'으로 옮겨지고 마는 것이다."(338-339쪽)

결국 시간의 경과는 기다림에서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시간의 길이는 기다림에서 목격함을 거쳐 기억으로 넘어가는 마음(영혼)의 길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기다림에서 목격함까지의 마음의 길이가 미래 시간의 길이일 것이고, 목격함에서 기억까지의 마음의 길이가 과거 시간의 길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길이가 어떻게 성립하는가가 궁금해집니다. 하나의 기억과 현재의 목격함 사이에 놓여 있는 더 '빠른' 기억들의 개수를 셈으로써 마음의 길이가 성립하고, 하나의 기다림과 목격함 사이의 더 '빨리 다가오는' 기다림의 개수를 셈으로써 마음의 길이가 성립하는 건가요? 이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세한 설명은 없는

www.artnstudy.com

것 같습니다.

마음의 길이가 있으니 '마음의 운동' 내지는 '마음의 변화'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마음의 운동 자체를 시간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운동 역시 여느 물체의 운동처럼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물체의 운동(변화)이 시간이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334쪽 참조) 만약 마음을 일종의 물체로 혹은 물체 비슷한 실체로 보면, 실체의 운동(변화)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운동(변화) 역시 시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의는 없습니다.

이 문제, 즉 마음의 운동 자체가 시간이냐 아니면 마음의 운동 역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간을 의식 내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은폐되어 버린 시간의 객관성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이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마저 당신이 내신 바니 당신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그 시간이란 도시 없는 것입니다."(323쪽)라고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만약 시간을 인간의 마음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말은 신이 인간의 마음을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게 되었으니 결국은 시간을 신이 창조한 것이라 말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 자체를 신이 창조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신이 창조한 시간은 심지어 인간의 마음마저도 어찌할 수 없이 타고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그 무엇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체의 운동(변화)과 시간을 확실하게 분리한 아우구스티누스, 시간을 인간의 마음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 의식 내적인 시간을 정초한 아우구스티누스, 그럼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의존해 있는 시간과 신의 영원을 확실하게 구분함으로써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로 올라가 사랑을 중심으로 한 신이 주는 지혜를 얻는 길을 제시하는 아우구스티누스. 남은 문제는 앞서 잠시 살펴본 '수직으로 선 시간' 즉 '영원한 현재'를 어떻게 내재적 초월로서 확립해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미제로 남겨져 있는 객관적 시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www.artnstudy.com